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WTO) 美 무역대표부의 WTO 개혁 제안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전망 2
- '투명성 강화, SDT 기준 재정립, MFN 원칙 재검토' 등 WTO 핵심 개편 방향을 담은 보고서 발표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상무부, 자동차부품 232조 관세 적용 대상 추가 포함 절차 개시 4
- (산업)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미국 자동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 5
- (공급망)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알루미늄 공급망·자동차 산업 차질 우려 6

🏛️ 의회법안 동향

- 특이동향 없음. 6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7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8

📅 워싱턴 D.C. 주요일정

3.24(화)	• 3월 S&P 서비스 PMI 속보치(S&P flash U.S. services PMI)
3.25(수)	• 2월 수입물가지수(Import price index)
3.26(목)	• 3월 3주 실업수당 청구건수(Initial jobless claims)
3.27(금)	• 3월 소비자 심리(Consumer sentiment (final))

(WTO) 美 무역대표부의 WTO 개혁 제안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전망

1. 개요

□ 미국의 WTO 개혁안 발표로 관련 논의 본격화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3월 24일 「WTO 개혁에 대한 추가 전망」 보고서를 발표, 기존 다자무역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
 - 동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공개된 후속 보고서로 투명성 강화, 개발도상국 우대(SDT) 재정의, 최혜국대우(MFN) 원칙 재검토 등 12p 분량의 주요 개혁 과제를 포함
 - 특히 WTO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untenable)”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제기
- 동 보고서는 WTO 이사회에 공유되었으며, 3.26일 카메룬에서 개최 예정인 MC14를 앞두고 회원국 간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표
 - 미국은 상호주의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통상 환경 필요성을 제시, EU는 투명성 강화 및 공정경쟁 등 일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자체제의 기본 틀 유지 입장
 - 반면 중국 및 일부 개도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와 MFN 원칙 존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체제의 안정성을 중시, 주요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는 양상

2. 상세

□ WTO 기능 문제의식 및 핵심 규범 개편 논의

- 미국은 기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투명성 부족과 불공정 경쟁 구조를 지목, 현 체제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 특히 통보 의무 미이행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협상과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회원국 간 신뢰 기반도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
- 아울러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 SDT 및 MFN 등 핵심 규범의 한계를 제기
 - SDT 제도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협상 참여국 간 의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

- MFN 원칙 역시 무임승차 문제와 비대칭적 시장 개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호주의 기반의 통상 질서 구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평가
- **국가안보 관련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 적용에도 문제를 제기**
 - 미국은 국가안보 판단은 각국의 고유 권한이며, WTO가 이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 이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분쟁 사례와 같이 WTO 분쟁해결 기능의 역할 축소 논의로 이어지는 모습

□ 복수국 협정 확대 및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영향

- **미국은 WTO 협상 정체의 원인으로 회원국 간 합의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지목,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 협정 중심 협상 방식 확대 제시**
 - ‘임시 복수국 협정(interim plurilateral)’과 일정 참여 비중 충족 시 제도 편입을 검토하는 ‘critical mass’ 기준 등 새로운 접근 방식 제안
- **일부 국가 간 선별적 협력을 바탕으로 규범이 형성되는 구조로의 전환 주장**
 - 다만 이는 WTO 체제 자체를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다자 틀 내에서 협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평가
 - 이에 따라 WTO는 기존의 보편적 다자주의에서 보다 선택적이고 유연한 협력 체제로 변화할 가능성과 ‘체제 파편화’ 가능성이 거론

□ 현지 반응 및 전망

- **미국 및 일부 선진국은 WTO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 확대를 지지**
 - EU 등은 투명성 강화 및 공정경쟁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면, 중국 등 일부 회원국은 MFN 유지 및 개발도상국 지위 보호를 강조하며 입장 차이 지속
- **현지에서는 WTO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회원국 간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도출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
 - SDT 및 MFN 등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USTR 보고서(3.23), 인사이드(3.23), 폴리τικο(3.24) 등 현지 언론 종합

(관세) 美 상무부, 자동차부품 232조 관세 적용 대상 추가 포함 절차 개시

- (개요) 자동차부품 232조 관세 대상 추가 포함 요청 접수 공지 (3.24)
 - 美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및 산업안보국(BIS)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추가를 위한 정기 접수 개설 공고
 - 동 조치는 '25년 9월 제정된 중간최종규칙(IFR)에 따라 운영되는 분기별 정례 절차의 일환으로, 접수 마감 후 요건 충족 신청 건은 Regulations.gov(Docket ID: ITA-2025-0040)에 공개되고, 이후 2주간 공개 의견수렴이 진행될 예정

〈자동차부품 제232조 추가 포함 요청 주요 일정〉

구분	세부 일정	비고
공고 일자	'26. 3. 24. (화)	연방 관보(91 FR 13998) 게재
접수 개시	'26. 4. 1. (수) 00:00 (미 동부시간)	이메일 접수(AutoInclusions@trade.gov)
접수 마감	'26. 4. 14. (화) 23:59 (미 동부시간)	-
의견 수렴	접수 마감 직후 2주간 실시	Regulations.gov (ID: ITA-2025-0040)
정기 주기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1회, 각 2주간 운영

[자료] 연방관보

- (상세) 포고문 및 중간최종규칙에 근거한 자동차부품 추가 포함 절차 운영
 - (법적 근거) '25년 3월 포고문 제10908호 및 9월 중간최종규칙(90 FR 44767)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 및 일부 자동차부품에 제232조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적용 대상의 추가 조정 절차 제도화
 - (신청 요건) 신청 전 해당 부품의 포고문상 기존 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존 심사 중인 동일 품목은 결정적 신규 정보가 없는 한 재신청이 제한
 - (검토 절차) 접수된 요청 건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되며, 이해관계자에는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
 - 향후 업계 신청 품목 및 정부 수용 범위에 따라 관세 적용 품목의 추가 확대 가능성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 연방관보(3.24), 백악관(3.26)(4.29)

(산업)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미국 자동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분석

- (개요) ITIF, 미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된 것으로 분석

-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

- * 미국 빅3 자동차 기업(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1965년 92%에서 2024년 38%로 감소

- (상세) 중국 전기차 생산 부상, 관세 정책이 제한적 영향력을 가진다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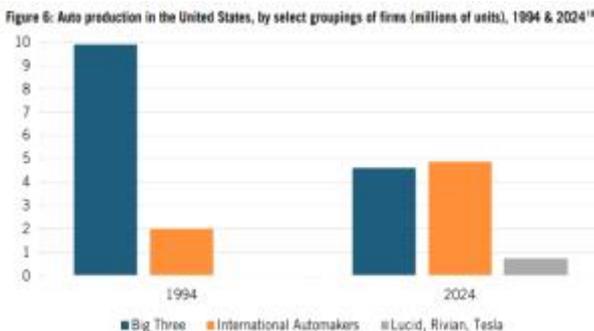
- 중국은 2024년 기준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하며 중국의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증장기적 위협으로 분석

- 보고서는 전동화·자율주행·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을 미래 핵심 차량 기술로 보고 미국 자동차 업체는 전동화에는 뒤처져 있고, 자율주행은 앞서 있으며, SDV 분야는 동등한 수준으로 분석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외 생산 차량에만 적용되는데 한국·일본·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부품 사용·미국 내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 관세 영향이 제한적

- 관세 정책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서, 기술 혁신·생산성 향상·산업 전략 재정립을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

〈1994년, 2024년 미 자동차 생산량〉



〈미국 판매 차량의 생산 장소 비중〉



[자료: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 ITIF(3.23), 폴리티코(3.24)

(공급망)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알루미늄 공급망·자동차 산업 차질 우려

• (개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걸프 지역 알루미늄 생산·공급 축소

- 파이낸셜 타임스, 중동 상황 장기화로 걸프 지역 알루미늄 공급*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패닉 구매(panic buying)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3.24)
- 중동 상황 발발 직후 알루미늄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최대 12% 급등 후 반락, 수입 프리미엄은 30~40% 상승하며 알루미늄 비용 압박 가중

• (상세) 걸프 지역 알루미늄 공급 감소에 따른 자동차 산업 차질 우려 제기

- 바레인(Aluminium Bahrain), 카타르(Qatalum) 등 걸프 주요 알루미늄 생산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전력 공급 및 원자재 수입 차질로 생산 감축에 돌입
- 일부 자동차 업체는 고철(스크랩) 사용 비중을 확대하며 단기 대응을 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 다수가 수개월치 재고 소진에 의존하며 신규 공급 확보*에 난항 언급
- * 휠 합금, 차량 부품용 알루미늄 블록 등 특수 규격 제품의 공급 부족이 특히 심각

- 걸프 지역은 세계 정제 알루미늄의 약 10%를 공급, 유럽(14%)·미국(22%)·일본(25%)의 핵심 수입원으로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생산 차질 불가피
- 일본 완성차 업체(도요타 등)는 대체 공급망 확보에 주력, 포드(Ford)는 현재까지 공급망 차질은 없다는 입장,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6월·7월부터 생산 감축 가능성 언급
- 분석가들은 "낮은 재고 수준과 재가동 가능한 유휴 설비의 제한으로 인해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4,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

* 런던금속거래소 3월 기준 알루미늄 현물가는 톤 당 약 \$3,052 ~ \$3,105 수준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파이낸셜타임스(3.24), The National (3.15)

판 의회법안 동향

특이 동향 없음.

* 미국 동부 시간 3월 24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GOP Senators Make Offer to Fund DHS, End TSA Staffing Woes (공화당 상원의원, 국토안보부 예산 타협안 제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토안보부 예산 가운데 이민 체포·추방을 담당 부서를 제외한 예산 지원 타협안 제안, 교착 상태 속에서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The Washington Post	How to get Big Tech to pay your energy bills (빅테크가 우리 집 전기요금을 대신 낸다)
	수천 가구를 소프트웨어로 연결해 '가상발전소(VPP)'로 가정용 배터리의 전력을 공급, 구글은 미네소타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를 위해 가정·기업에 수천 개의 배터리 구축을 지원할 계획
The New York Times	Supreme Court Seems Open to Trump Request to Block Asylum Seekers at Border (연방대법원, 국경 난민 차단 조치 재도입 요청에 긍정적 기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다수의 망명 신청자를 돌려보내는 정책은 2021년 폐지됐으나, 법무부는 이를 국경 통제 수단으로 재도입할 수 있는 재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Bloomberg	BTS Leads Netflix's Push for Asian Viewers (BTS, 넷플릭스 아시아 시장 공략 선봉)
	4년만에 컴백한 BTS 라이브 공연 넷플릭스 공개,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넷플릭스의 전략적 행보 주목
Reuters	Oil rises as supply disruption persists and Iran denies talks with US (이란 협상 부인, 유가 공급 차질 속 지속 상승)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주요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란은 이를 부인, 파키스탄은 양국 간 중재 의사를 밝혀

* 미국 동부 시간 3월 24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09	美, 과잉공급·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3월
US26-08	미국 2025년 수출입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2026.3월
US26-07	2026 워싱턴 국제무역회의 주요내용 및 전망	2026.3월
US26-06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에 따른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 평가	2026.2월
US26-05	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	2026.2월
US26-04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	2026.2월
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2026.1월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US25-45	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함의	2025.12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6 (2026.2.6.)		
코인사-25 (2026.1.24.)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